

지식재산처, '직접 만들고 함께 쓰는' 인공지능 업무혁신 본격화

- 지식재산처, 처장, 국장 등 간부 대상 '대화형 코딩(바이브 코딩)' 공동 연수 개최 -
- 인공지능 도구 제작, 사내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장터·개발 공모전과 연계해 전 직원으로 확산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27.(목) 14시 30분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지식재산처장 및 국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바이브 코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형 행사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업무에 적용하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 대화형 코딩(바이브 코딩, Vibe Coding): 전문적인 코딩 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기능을 말로 설명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를 실제 프로그램(코드)으로 만들어 주는 개발 방식

지식재산처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바탕으로 내부 인공지능과 연계해 특허문헌 요약·비교, 청구항 분석 등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는 물론, 자료 분석·정리와 반복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간부들도 이러한 개발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봄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적인 시도를 각 부서의 업무혁신으로 확산하고 조직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직원들이 개발한 업무도구를 서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사내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장터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업무도구 개발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참신한 생각이 신속하게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우수한 도구는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활용하는 ‘개발-공유-확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조직 전반의 인공지능 업무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 전환의 성패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업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간부들부터 인공지능을 직접 이해하고 활용해 각 부서의 변화를 이끌고, 직원들의 참신한 생각이 실질적인 업무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국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책임자	과 장	한규동 (042-481-5460)
		담당자	사무관	류호길 (042-481-5084)
		책임자	과 장	김용웅 (042-481-5099)
		담당자	사무관	양대경 (042-481-8185)

□ 추진개요

- 최근 사람이 아이디어와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하면 AI가 이를 구현하는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바이브코딩) 확산
 - * 바이브 코딩(Vibe Coding): 생성형 AI에 자연어로 개발 의도와 기능 요구사항을 지시하여 업무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구현하는 개발 방식
- 우리처 내부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장급 바이브코딩 워크숍』 기획·추진

□ 일정 및 참석 대상

- (일시/장소) 8.27(목) 14:30~17:30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산교육장
 - (대상) 지식재산처장, 보직국장(각 국 주무서기관 동참) 등 30명 이내

□ 세부 추진계획

- (교육) 바이브 코딩 실습을 위한 기초교육 및 개발 사례 공유 등
 - * 바이브 코딩 기본교육, 우리처에서 심사관 등이 개발한 앱 예시 등
- (개발) 제시된 예시를 참조해서 자율적으로 앱 개발(자체 아이디어)
 - * HTML 기반 앱 개발 → 내부 앱스토어에 앱 등록 추진
- (총평) 개발 경험 공유·시연

시간		내 용		비고
14:30~15:20	15'	[교육]	우리처 AI 활용 현황 및 향후 방향	한규동 과장, 류호길 사무관
	35'		바이브 코딩 개념 이해 및 시연	
15:30~16:30	60'	[개발]	외부 AI 활용 바이브 코딩	참가자 전원
16:40~17:30	50'	[총평]	개발 경험 공유 및 개발앱 시연	참가자 전원